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• 따뜻한 금융</li> <li>• 튼튼한 금융</li> </ul>
<b>책 임 자</b>	<b>보도</b>	<b>배포 시부터 즉시</b>	<b>배포</b> 2016.8.30(화)
<b>금융위</b>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민우(02-2100-2650)	<b>담 당 자</b>	최성규 사무관 (02-2100-2655)

## 제 목 : 한국경제 8.31일자 가판 「투자상품인 ELS에 원금 보장하라는 건 틀린 이야기다」 제하의 기사 관련

### < 기사 내용 >

- ☐ 한국경제는 8.31일자 가판 「투자상품인 ELS에 원금보장하라는 건 틀린 이야기다」 제하의 사설에서,
  - “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(ELS) 자금을 별도의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..... 증권사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도 원금을 건질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..... 금융위는 ELS 고유의 특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..... 엄연한 증권투자상품인 ELS를 팔되 수익은 보장하고 리스크는 증권사가 떠안으라는 식은 곤란하다. ELS를 없애라는 것과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가” 라고 보도

### < 사실 관계 >

- ☐ ELS 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,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다만, ELS를 신탁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은 증권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신탁계정 자산으로 ELS 투자자에 대해 우선 변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, 신탁계정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- 따라서 신탁계정을 통한 관리가 ELS 고유의 특성을 없애거나 ELS 자체를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